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85)(8/1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9 장 영생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약속된 지극히 큰 상을 바라봄, 3 절

롬 8:21 -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전 6:19-20 -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 3:6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 네게 즐겁고 이로운 것들을 구하지 말고, 내게 열납되고 영광이 될 것들을 구하라. 네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한다면, 당연히 너는 네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서, 내가 정해 준 것들을 따르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있고, 네가 무수히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 왔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롬 8:21), 이미 너의 영원한 거처, 곧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는 아직 오직 않았고, 여전히 마지막 한 때, 곧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된 싸움을 거쳐 연단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너는 최고의 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최고의 선이다. 그러므로 너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눅 22:18).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4)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고전 6:19-20 -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고민한다. 아울러 주의 백성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바울은 갈 1:24 에서 자신의 회심과 변화로 말미암아 유대의 교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했다. 갈 1:24 -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5)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핵심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잘못된 기준을 취한 것이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신념을 따랐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풍조와 함께, 나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나타난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십계명이나 다양한 율법의 내용들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주님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6)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다.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욕구에 이끌리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는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행 27:23-25 -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지게 했다.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소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계 3:6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삶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멕시코 유카탄 김금호 선교사님, 이철남 선교사님, 페루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 페루 황윤일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성령충만의 은총과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각성하며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